

국별 리포트

캄보디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181천 Km ²	G D P	104억 달러 (2010년)
인구	1,510만 명 (2010년)	1 인 당 GDP	712달러 (2010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통화단위	Riel
대외정책	친서방 외교중시	환율 (달러당)	4,185 (2010년 평균)

-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UN분류 기준 세계 최빈국으로서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앙코르와트 등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과 의류산업, 건설업 등을 통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1.4%의 고도성장을 이뤘음.
- 2009년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관광산업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0.1%로 급격히 하락하였음. 2010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및 관광객 증가로 5.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도 6.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캄보디아는 1999년 아세안 가입 후 다른 후발 아세안 회원국인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함께 아세안 회원국 간의 개발 격차 해소라는 공동 입장을 견지하며 실질적인 협력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인권탄압과 부정부패로 인해 UN과 서방 국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미국, 중국 등 주요 원조 공여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08년 7월 실시된 총선에서 캄보디아국민당이 압승을 거둔 후 훈센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e	2012 ^f
경제성장률	6.7	0.1	5.9	6.1	5.5
재정수지 / GDP	-0.1	-6.3	-4.8	-5.3	-5.7
소비자물가상승률	25.0	-0.7	4.0	5.7	3.7

자료: IMF 및 EIU.

□ 세계경기 침체로 2008~09년 중 경제성장 크게 둔화

-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로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여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의류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중단으로 인한 건설투자 감소, 관광산업 위축 등으로 2008년 경제성장률이 6.7%로 급격히 하락하였음.
- 세계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2009년에는 대미 수출 악화로 100개가 넘는 섬유·봉제 공장이 폐쇄되어 이로 인한 실업자가 3만 명이 넘는 등 제조업이 전년 대비 15% 축소됨에 따라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0.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 성장률 회복세

- 2010년 들어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EU 등의 경기 회복에 따라 의류 및 쌀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관광객 수 또한 전년 대비 16%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이 5.9%까지 상승함.
- 2011년에 EU의 원산지조건 완화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개선되고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의류 및 쌀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관광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또한 5.3% 성장하여 약 6.1%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중국 등 신흥 개도국의 수입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1년 4사 분기에 발생한 홍수로 전체 24개 중 17개 주가 피해를 입었고 미국 및 유럽 주요국의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감소가 예상되어 2012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다소 하락한 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 캄보디아는 의류산업 이외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세수가 부족하고, 세수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적자의 대부분은 해외 무상원조 및 양허성 차관에 의존하고 있음.
- 2009년에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적자의 GDP 대비 규모가 전년도 0.1%에서 6.3%로 확대됨에 따라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각국 정부 및 대외원조기관으로부터 총 9억 5,150만 달러의 무상원조 및 양허성 차관을 지원받았음.
- 2010년에 경기 회복과 정부의 새로운 재산세 도입 및 세수행정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정부지출(2010년 기준 GDP 대비 20.7% 차지)로 GDP 대비 약 4.8%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재정적자가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세입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정부수입 증가폭이 크지 않아 정부저축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채 이자 지급 관련 지출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적자 비중은 2011년에 5.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2년에도 5.7%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세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임금인상 억제, 리엘화 환율 안정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07년 말 이후 주요 식료품가격 및 유가 상승으로 급속히 상승하여 2008년에는 1997년 이후 최고인 전년 대비 25.0%를 기록하였음.
-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둔화 및 소비심리 악화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크게 하락하여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0.7%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였음. 2010년 들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비용 상승 및 식료품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여 4%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함.

- 2011년에도 내수 확대와 정부지출 증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5.7%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2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국제상품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하락한 3.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통화정책 효과 제한적

-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캄보디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 NBC)은 아직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2011년 12월 기준 12%) 인상을 통한 통화량 증가 억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 물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긴축 통화정책이 운용될 수 있으나, 캄보디아 경제는 달러화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취약한 제조업 기반과 수출구조

- 제조업의 대부분은 봉제, 의류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경제성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크며, 대부분의 자본재와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상품수출에서 의류제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로 의류산업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출의 70% 이상이 미국과 유럽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구조적 취약성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선진국의 의류제품 수요가 위축될 경우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대상국(2010년): 미국(37.0%), 홍콩(26.9%), 싱가포르(8.3%), 캐나다(5.3%) 등

□ 사업 및 투자환경 열악

- 도로, 전기, 용수 등 사회 인프라가 크게 낙후되어 있어 대부분의 진출기업들이 자가 발전기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료가 인근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생산비용 상승과 이에 따른 수익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조세제도 정비가 미흡하여 사업환경 개선 및 신규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함에 따라 주력 산업 이외 부문에 발전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부정부패 심각

- 캄보디아는 세관, 세무, 행정 관련 부정부패가 심각하여 성장 및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dex: TI)가 조사한 2011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캄보디아는 총 182개국 중 164위를 기록하여 전년보다 순위가 하락하였음.

□ 숙련 노동자 부족

-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여 기술자 확보가 어렵고, 일부 고급 인력의 경우 산업화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 훈련 시설 등이 부족함에 따라 노동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지급해야 함.

나. 성장 잠재력

□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 발전 도모

- 캄보디아는 독특한 역사적 유물과 오염되지 않은 청정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으며, 아시아 관광대국인 태국을 비롯한 베트남, 라오스와의 인접한 위치에 있어 관광객 유치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 2009년 세계경기 침체로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캄보디아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으나, 2010년 경기 회복세와 함께 상반기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16% 증가한 250만 명을 기록하는 등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임.
-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며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앙코르와트는 세계 최대의 관광지 중 하나로서, 호텔과 리조트 및 기타 위락시설이 집중된 거대 관광지로 조성되고 있음. 캄보디아 정부는 2006년부터 관광산업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관광 부문이 앙코르와트에 편중된 점을 감안하여 시아누크빌 중심의 해양관광 리조트 개발, 북동부 고원지대 중심의 환경관광 개발 등을 통한 관광 지역의 다양화 및 관광 부문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석유 생산 예정

- 캄보디아의 원유 발굴은 2002년 시추작업을 시작한 미국의 셰브론(Chevron), 일본의 미쓰이(Mitsui), 한국의 GS칼텍스 등 3자 합작 컨소시엄이 2005년 캄보디아 남부 해안 A블록에서 상당량의 원유매장을 확인하면서 본격화되었음.
- 당초에 2011년 석유 생산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였으나, 기술적 문제와 인접국인 태국과의 유전 소유권 분쟁 등으로 실제 생산은 2012년 말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2년에 추가적인 정유 공장 건설이 계획되어 2014년에 완공될 예정임.
- 캄보디아는 석유 생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배우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중국 등에 연수를 보낼 계획이며, 추후 석유 생산이 가시화되면 석유 수입 감소를 통한 캄보디아 정부 수입 확대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됨.

다. 정책성과

□ 경제 개혁정책의 지속 추진

- 오랜 전쟁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경제적 빈곤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던 캄보디아는 1997년 훈센 총리가 집권한 이후 정치적 안정과 함께 강력한 경제 개혁정책 추진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음.
- 훈센 정부는 경제개혁의 지속 추진을 위해 ① 경제성장률 제고, ② 고용 창출, ③ 평등과 사회정의 실현, ④ 정부 효율성 증대 등의 사각정책 (Rectangular Strategy)을 수립하여 현재 두 번째 단계(2009~13)가 시행중임.
- 사각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부패척결과 법체계 정비, 행정개혁, 지방분권화, 군부 개혁 등이 우선적 정책목표로 선정되었으며, 이외에도 농업부문 생산성 제고와 교통, 관개 등 사회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음.
-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빈곤층 확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2007년 기준 30.1%인 빈곤율을 2015년까지 19.5%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 1999년 ASEAN, 2004년 WTO에 가입한 캄보디아는 지리적으로 ASEAN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경제 개방 정책 및 주변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음.
-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인 캄보디아는 자본과 기술 도입, 고용창출 등 사회경제 전반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음. 캄보디아는 대부분의 산업 분야를 외국인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인근 동남아 국가와 비교해 경쟁력이 높은 외국인투자제도를 구비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e	2012 ^f
경 상 수 지	-1,051	-931	-879	-1,124	-1,259
경상수지 / GDP	-10.2	-9.0	-8.0	-8.8	-9.2
상 품 수 지	-1,801	-1,635	-1,648	-2,136	-2,403
수 출	4,708	4,196	5,143	6,110	6,390
수 입	6,509	5,831	6,791	8,246	8,793
외 환 보 유 액	2,291	2,744	3,150	3,357	..
총 외 채 잔 액	4,215	4,364	4,415	4,764	4,820
총외채잔액 / GDP	40.7	42.0	40.2	37.5	35.2
D. S. R.	0.9	1.1	1.1	1.1	1.3

자료: IFS 및 EIU.

□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의 지속적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 지속

- 2008년까지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섬유 및 의류부문의 호조로 양호한 수출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나, 석유제품 및 건설용 원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액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었음.
- 2009년 세계경기 침체 및 의류 제품의 국제 경쟁 심화로 인해 상품수출이 크게 위축되어 전년 대비 약 10.9% 감소하였으나, 수입규모 역시 내수 부진 및 투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약 10.4% 감소하여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감소하였음.
- 2010년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회복으로 의류를 포함한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22.6% 증가하였으나, 원유, 섬유 및 자본재 수입 또한 증가하여 상품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소폭 확대되었음.
- 유가상승과 높은 수입자본재 의존도에 따라 2011년 상품수입액이 전년 대비 약 2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2011년 상품수지 적자가 큰 폭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며, 2012년에도 세계경기 위축으로 수출이 소폭 증가에 그쳐 적자폭 확대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소득수지 개선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중 축소 전망

- 2008년까지 관광부문의 호조로 인해 서비스수지 흑자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상품수지 적자 확대 및 외국기업들의 이익금 본국 송환으로 인한 소득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증가하였음.
- 2009년 상품수지 적자 규모 감소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9%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도 관광산업 회복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 확대로 경상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중은 8% 수준으로 감소함.
- 2011년에는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30%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2년에도 동일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외채구조 개선

- 외국인투자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말 기준 약 3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양호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2005년 55.8%에서 2010년 40.2%로 개선되었음.
- 총외채잔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 회복에 따라 GDP 대비 규모는 2011년 37.5%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2년에는 35.2% 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캄보디아국민당 집권 지속

- 2008년 7월 27일 치러진 캄보디아 총선에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CPP)이 총 123개 하원의석 중 90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두었음.

- * 제1야당인 삼랭시당(Sam Rainsy Party: SRP)이 26석, 왕권당인 푼싹펙(Front for an Independent Neutral, Peaceful and Cooperative Cambodia: FUNCINPEC)이 2석, 인권당(Human Rights Party: HRP)이 3석을 차지하였음.
- 지난 2003년 총선에서 푼싹펙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CPP는 2008년 총선에서 전체의석의 73%를 차지하는 승리를 거두며 캄보디아 역사상 첫 여당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정치적 안정을 위해 푼싹펙당과의 연정을 유지하고 있음.
- 훈센 총리는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삼랭시당과 인권당이 연합하여 캄보디아국민당에 대응하는 민주변화운동당(Democratic Movement for Change)을 형성하였으나, 당분간 캄보디아국민당에 대항할만한 정치 세력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훈센 총리에 대한 높은 지지

- 캄보디아 국민들은 총선 이전에도 훈센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이룬 경제 성장과 정치적 안정에 대해 높은 지지를 나타내었음. 캄보디아국민당은 이미 2007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98%가 넘는 지지를 얻은 바 있어 2008년 총선에서의 승리가 예상되었음.
- 2009년에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는 등 독재지배 구조가 확고해지고 있으며, 2011년 1월 훈센 총리는 부패와 연루된 공직 인사들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임.

□ 상원의원 선거 및 기초단체장 선거 예정

- 1월 29일에 상원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자유 및 공정 선거에 대한 여론이 가열됨에 따라 국가선거위원회가 여당과 야당에게 동등한 방송홍보 시간을 보장할 것을 약속함. 그러나 투표권이 상·하원 의원 및 기초단체장에게만 주어질 민주적인 선거라고 보기는 어려움.

- 기초단체장 선거는 2012년 여름에 예정되어 있으며 모든 시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집권당 총리인 훈센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 유권자들 사이에서 두터운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삼렝시당 등 야당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은 높지 않음.

2. 사회동향

□ 노사갈등 등 사회불안 심화 전망

- 2009년 경기 회복세로 해고위험이 완화되자 의류제조 부문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임금 인상 및 근로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최근 공개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추가적인 파업이 발생할 수도 있음.
- 한편 수입상품 가격 상승에 따라 생활비가 상승하여 사회불안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지주 및 기업들이 집권여당 및 군부와 결탁하여 농민들에게서 농지를 빼앗음에 따라 빈부 및 계층 간 갈등이 악화되고 있음.

3. 국제관계

□ 태국과의 외교적 갈등 완화 조짐

- 2008년 7월, 캄보디아-태국 간 오랜 분쟁 지역이었던 국경 부근의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에 대해 캄보디아가 태국 외무장관의 서명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면서 동 사원의 소유권 문제를 놓고 양국의 분쟁이 격화되었음.
- 이후 사원의 영유권을 두고 양국의 군대가 국경에서 대치하며 여러 차례 교전을 벌이는 등 갈등 관계가 지속되었으나, 2011년 7월 태국 총선 이후 잉락 친나왓 총리가 취임하면서 국경문제 해결에 전환점을 맞이함.
 - 양국은 태국만 26,000km² 규모 해역의 유전 및 가스전 공동개발 사업을 다시 재개하기로 하였으며, UN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 국경지역에 비무장지대를 지정하여 평화 조성에 힘쓰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양국 간의 영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후 추가적인 국경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원조 공여국들과의 관계 강화

- 캄보디아는 인권탄압과 부정부패로 인해 UN과 서방 국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주요 원조 공여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은 캄보디아의 정치체제 및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 없이 대규모 원조 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대해 캄보디아 역시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One China’ 정책을 고수하며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중국은 2010년 중 캄보디아의 420만 달러 규모 채무를 탕감해 주었으며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 캄보디아는 1999년 아세안 가입 후 다른 후발 아세안 회원국인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함께 아세안 회원국 간의 개발 격차 해소라는 공동 입장을 견지하며 실질적인 협력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친 베트남 성향을 지닌 훈센 총리의 집권 하에서 베트남과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단기적 외채상환 불능 가능성 낮음

- 경기회복으로 총외채잔액의 GDP 대비 비중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외채의 대부분이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로 구성됨에 따라 단기적인 외채상환 불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1 (2012. 1)	D1 (2011. 7)
OECD	6등급 (2011. 3)	6등급 (2010. 4)
S&P	B (2011.10)	B+ (2007. 4)
Moody's	B2 (2011.11)	B2 (2007. 5)

* 동국은 Fitch의 신용평가 대상국이 아님.

* Euromoney: 118/186 (2009. 9) → 119/186 (2010. 3) → 152/186 (2010. 9)
 I.I.: 124/178 (2010. 9) → 132/178 (2011. 3) → 125/178 (2011. 9)

- 캄보디아는 2007년까지 OECD로부터 최하위 등급인 7등급을 부여받았으나, 2008년 4월 OECD 국가신용도 평가전문가 회의에서 관광산업의 호조, 외채관련 지표의 개선, 점진적인 경제성장, 석유 생산 가능성 증가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6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6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S&P는 2011년 10월 달러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해외 원조를 통한 재정수지 적자 보전 등을 근거로 캄보디아의 장기 신용등급을 기존의 B+에서 B로 하향조정하였으나,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함.
- 캄보디아는 심각한 부정부패, 열악한 인프라, 달러화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정부의 외환관리가 어려움. 또한 오랜 내전과 정치 불안의 영향으로 금융 시스템 역시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국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수은: 단기 및 중기 부보위험 제약조건 가능
- 영국 ECGD: 제 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중기는 개별심사
- 독일 Hermes: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네덜란드 Atradius: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7년 10월 30일 (북한과는 1964년 2월 28일)
- 주요협정: 무역협정 (1964), 투자보장협정 (1997), 경제기술협력협정(1997), 항공운수협정 (2001), 문화협력협정 (2006),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2006)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캄보디아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캄보디아	2009	2010	2011(1~11월)	주요품목
수 출	273	333	404	편직물, 자동차, 기타섬유제품
수 입	18	43	79	의류, 임산부산물, 갑각류
합 계	291	376	483	

자료: 한국무역협회.

- 캄보디아와의 교역규모는 1997년 양국 수교 이후 본격화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 대 캄보디아 상품수지 흑자가 1억 달러를 초과한 이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 2010년 대 캄보디아 수출은 3억 3,300만 달러, 수입은 4,345만 달러로 2억 8,955만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대 캄보디아 해외직접투자는 2011년 9월말 기준 부동산업, 건설업, 제조업 중심으로 633건, 17억 5,687만 달러를 기록(투자누계 기준)하였음.

□ 제6위의 EDCF 지원대상국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EDCF 지원 현황은 2011년말 기준 총 12건, 3,845억 원(승인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 6위 지원대상국임. 우리나라 정부는 캄보디아를 중점 지원 대상국에 편입시키며 KSP 사업을 확장하는 등 원조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VI. 종합 의견

- 캄보디아는 2009년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관광산업 위축 등으로 0.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의류 및 쌀 수출 증가와 관광객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5.9%까지 상승하였으며, 2011년에 EU의 원산지조건 완화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개선되고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성장률이 소폭 증가한 6.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의류산업 이외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세수가 부족하고, 세수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음. 2010년에 유가 및 식료품가격 상승으로 4%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도 내수 확대와 정부지출 증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5.7%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08년 7월 실시된 총선에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국민당이 압승을 거두며 역사상 첫 여당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훈센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012년 중 상원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나 캄보디아국민당의 지지기반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외채의 대부분이 중장기 공적채무로 이루어져 있고 외채관련 지표가 개선추세에 있어 단기적으로 대외지급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이 순 재 (☎02-3779-5705)
E-mail: soonjaelee@koreaexim.go.kr